

토방 낮추고 안심콜에 건강 알림... 눈길 끄는 노인 배려정책

장성군, 오래된 주택 경사로·난간 등 설치 이등로 확보
나주시, 홀로 사는 노인들 정기 안부 전화로 건강 점검
해남군, 도시 자녀들에 부모님 건강·근황 문자 서비스
노인 건강·여가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도 많아

■ 전남 시군별 노인인구 현황 (주민등록 통계)

단위: 명, % / 2017년 7월말 기준

시군	전체 인구	65세 이상	노인인구	노인인구 비율(%)
합계	1,897,681	405,407	405,407	21.4
목포시	235,349	33,361	33,361	14.2
여수시	287,479	47,827	47,827	16.6
순천시	280,314	39,076	39,076	13.9
나주시	108,936	24,003	24,003	22.0
광양시	152,565	17,370	17,370	11.4
담양군	47,302	13,517	13,517	28.6
곡성군	30,341	10,025	10,025	33.0
구례군	27,117	8,347	8,347	30.8
고흥군	67,114	25,545	25,545	38.1
보성군	44,051	15,380	15,380	34.9
화순군	64,957	15,740	15,740	24.2
장흥군	39,961	12,615	12,615	31.6
강진군	37,185	11,747	11,747	31.6
해남군	74,142	21,726	21,726	29.3
영암군	56,257	13,743	13,743	24.4
무안군	82,596	16,449	16,449	19.9
함평군	34,354	11,397	11,397	33.2
영광군	55,128	14,965	14,965	27.1
장성군	45,868	12,714	12,714	27.7
완도군	52,372	15,736	15,736	30.0
진도군	31,896	10,187	10,187	31.9
신안군	42,397	13,937	13,937	32.9



동네어머님들은 에어콘을 트고 계시는데 어머님은 몸이 으슬대서 밖에 나와 계십니다
매일 안과치료를 하러 다니시는 어머님은 매우 지켜보아드립니다
백내장수술 후 염증때문에 신경써서인지 야윈모습입니다
형님형당상태 좋으시고 그래도 눈상태가 좋아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해남군이 부모의 건강과 근황을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는 자녀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이용자가 꾸준히 늘었다. <해남군 제공>

전남은 전국에서 유일한 '초고령사회'다. 지난달 말 전남 전체인구(189만7681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40만5407명으로 21.4%에 이르렀다.

UN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사회',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로 정의한다. 고령 인구 비율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양이다.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1990년(7.7%) 이후 고령사회(2003년 14.1%)가 되는데 13년이 걸렸지만 초고령사회(2014년 20.1%)는 11년 만에 진입했다.

하루가 다르게 늙어가는 지역, 노년층에 대한 배려와 준비는 얼마나 진행됐을까. 지역 여건을 감안, 실정에 맞는 노인정책을 내놓는 자치단체의 사례를 살펴봤다.

◇“무릎 아프시죠... 낮춰드릴게요”=장성군의 '토방(土房) 낮춤사업'은 27.7%(1만 2714명)가 넘는 장성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한 현행형 아이디어 사업으로 꼽힌다. 엄청난 돈을 들인 거창한 사업이 아닌, 현장형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적지 않다. 흘러버리지 않고 직접 행진 유두석 군수의 꼼꼼함도 눈길을 끈다. 토방은 마루와 마당 사이에 마당보다 조금 높게 흙으로 조성한 것으로, 옛날식 주택에 설치돼 있다. 무릎이 좋지 않은 노인들의 경우 힘들어하는 데다, 자칫 헛디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장성군은 우선, 취약계층 2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뒤 2000년 이전 지어진 주택 1만 389채를 돌려 필요성 여부를 파악해 확대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장애인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주택은 토방 낮춤 뿐 아니라 경사로, 난간 등도 설치해 마당에서 마루까지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잘 계시죠... 아픈데는요”=나주시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안심콜 서비스'는 지역 노인들의 안부를 자치단체가 챙겨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자녀들 대신, 딸같은 상담원이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챙기며 건강 상태를 살피는 서비스다. 65세 이상 노인(2만4003명) 중 홀로 사는 노인 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건강 상태를 감



장성군이 '토방 낮춤사업'을 한 주택, 마당과 마루 사이에 설치된 토방 계단 수를 2개에서 3개로 늘려 보다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장성군 제공>

안, 2~3일 또는 1~2주 단위로 전화로 안부를 묻고 건강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별일 없으시죠”, “요즘 뭐하세요” 등 단순 안부 외에도 “오전에 폭염 경보 내렸으니 물 자주 드시고 그늘에 가세요”, “눈 많이 온다니 집에서 TV 보세요” 등 계절별 건강수칙 등 자식같은 체감 서비스를 펼칠 계획이다.

◇“어머니, 오늘 고구마순 심으셨대...”=해남군의 '부모건강 알리서비스'는 부모를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자녀들 사이에 입소문이 난 인기 서비스다. 지난 2009년부터 매년 1400여명이 넘게 부모님 소식을 문자로 자녀들에게 전하고 있다. 8명의 방문간호사가 신청한 어머니·아버지같은

■ 연도별 전남 노인인구 변동 추이

단위: 천명 / 2017년 7월말 기준

연도	전체 인구	노인인구	노인인구 비율
1980	3,779	187	5.0
1995	2,066	211	10.2
2000	2,134	254	11.9
2005	1,967	306	15.6
2010	1,918	351	18.3
2013	1,907	374	19.6
2014	1,906	384	20.1
2017	1,898	405	21.4

*1990년까지는 상주 인구조사 결과이고, '91년 이후는 주민등록인구 통계 결과임. (광주시는 '85년까지, 송정시, 광안군은 '87년까지 포함)

112가구 부모님들을 만난 소식을 언니, 오빠, 동생같은 자녀들에게 매일 한 차례 이상 알려준다.

혈압, 당뇨체크 등 의료서비스도 제공하고 앞마당에 핀 도라지꽃과 고구마순 심고 있는 어머니 사진까지 찍어 보내준다. 자주 찾아볼 수 없는 부모님 소식을 정기적으로 사진까지 볼 수 있는 만큼 인기가 높다는 게 해남군 설명이다. 지역 전체 인구(7만4142명) 중 29.3%(2만1726명)에 달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배려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이외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 진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눈에 띈다. /김지용기자 dok2000@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해남=박희석기자 dia@

수영장·체육관...장성군 주민 이용 체육시설 '대도시 못지않네'

장성군은 대도시 못지않은 스포츠시설을 갖추고 지역민들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장성 실내수영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전체면적 2450㎡)로, 25m 길이 6개 레인을 비롯해 유아풀과 스피클,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초보자들도 쉽게 수영을 배울 수 있도록 강습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특히 상반기 주 4회씩 아쿠아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 관절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들의 인기를 끌었다.

이용 요금도 저렴하다. 65세 어르신은 1500원을 내면 된다.

장성군은 또 수영 풀나루 등에겐 무료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길동체육관에서도 배드민턴, 농구, 배구, 탁구, 에어로빅, 요가는 물론이고 헬스, 스쿼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인공암벽 등반 시설도 있다. 스쿼시 경기장의 경우 대도시에도 많지 않고 사설 헬스장이 한



장성군 실내수영장 아쿠아운동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는 지역민들. 관절 건강이 좋지 않은 지역 노인들에게 인기가 많다. <장성군 제공>

곳도 없는 장성군의 유일한 헬스장으로 이용자가 끊이지 않는다.

홍길동체육관은 실내 골프연습장과 미니 그라운드를 갖춰 골프 애호가들의 욕구를 충족하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군의 체육시설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득량만 전어 어획량 작년보다 늘어날 듯

전어가 많이 잡히고 있다. '가을 전어'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

7월 중순부터 보성 득량만 일대에서 전어를 잡기 시작해 이맘때면 완벽한 '전어할'로, 올해는 지난해보다 어획량이 많다는 게 수협측 설명이다.

지난해 고흥군수협이 경매한 전어 위판량은 79t. 올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수협측은 내다봤다.

고흥군 수협 관계자는 “전어잡이 하는 어민들의 얘기들이 하나같이 작년보다 많이 잡힌다고 한다”고 말했다.

위판량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선단 어획량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거래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위판가격은 1kg당 4000~5000원선으로 지난해보다 다소 떨어졌다.

/보성=김용호기자 kyo@



화순읍 그늘막 “무더위 식히고 가세요” 화순군이 무더위에 지친 지역민들을 위해 읍내 중심지에 그늘막을 설치,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화순군에 따르면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화순읍 국민은행 앞과 남산공원 입구에 그늘막을 설치, 신호를 기다리는 주민들이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 있도록 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북구, 삼각동 토지

- 광주 북구 삼각동 147-4, 11, 15번지 - 313평
- 209, 209-1번지 - 203평
- 31사단, 삼일아파트 지나서 옆마을
- 총 516평, 필지별 매매가능
- 도시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 아파트 예정 후보지 1순위 지역
- 단기간 투자 최고지역
- 매매 - 평당 200만원 (조정가)
- 주인직매 H. 010-3605-5000

“급 매”

리조트 콘도/무인텔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42억
- 온천지구 내 ‘(주) 바리오 화순에’
-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
- 상담문의 H. 010-3605-5000

나주, 다도면 임야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평당 70만원
- 주인직매
- H. 010-3605-5000